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여성회

여성회 44주년 | 2024 연례 보고서 | Annual Report | 2023.7-2024.6



제44회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 총회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6:00 PM
(Chevy Chase Country Club, Wheeling, IL)

5:00 PM 등록

6:00 PM 1부

개회 사회자 (임미라 총무)
축가 시카고한인여성회합창단 (지휘 표경진, 반주 정혜원)
1. 나 하나 꽃 피어 2. 바람이 불어오는 곳

환영사 고애선 회장

축사 최은주 시카고한인회 회장

축사 김정한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감사 보고 김미경 감사

회계 보고 크리스틴 윤 회계

차기 회장 발표 심형란 공천위원장 (육원자 이사장 대행)

감사패 수여 (심형란 이사장) 고애선 회장

공로패 수여 (권오화 합창단장) 고애선 회장

감사패 수여 (장순진 이사) 고애선 회장

이임사 심형란 이사장

취임사 박순자 신임 이사장

라인댄스 공연 여성회 회원부 라인댄스팀 (강사 서명혜)
1. Green Green Grass of Home 2. Julia

제20대 임원 소개 및 사진 촬영 고애선 회장

7:00 PM 2부

저녁 식사

모듬북 공연 여성회 회원부 모듬북반 (강사 이애덕)
1. 헝가리 무곡 2. 각시탈

심해옥 장학금 수여 (Sunmi Cho) 권오화 장학위원장
(Shin Young Park)

차세대 교육 지원금 전달 (여성회) 권오화 합창단장/장학위원장

축하 공연 바리톤 이수영
1.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2. 이룰 수 없는 꿈

싱어롱 다함께

폐회

Welcome Remarks | 환영사

초록의 향내가 가득한 희망의 계절 6월에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총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이사님들과 동포 사회 단체장님들, 언론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여성회’라는 표어로 제20대 시카고한인여성회를 시작한 지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며 열정과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신 23분의 임원님들과, 항상 사랑과 격려로 여성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전직 회장님들과,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일 년의 여정은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청소년 리더십’ 행사를 9월 16일 교육부 주관과 비스코 재단의 후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으며, 12월 10일 ‘여성회 감사의 밤’ 행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껏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회의 자랑인 합창부의 4월 21일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는 동포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성공적인 행사였으며, 이제는 여성회를 넘어서 한인 동포사회의 미래 희망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주어진 일 년의 기회를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의 고정관념과 벽을 뛰어넘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한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주고, 은퇴 후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꿈을 심어드리며,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창조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여성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젊은 청년들 못지않게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난 일 년 동안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심형란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사장님 대행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함께해 주신 육원자 이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삶의 여정에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는 시카고한인여성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고애선





지난 임기 동안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간은 물처럼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여성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쉬움이 한 장면 한 장면 아름답게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음악회를 보면서 이제
 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수준급으로 우뚝 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았습
 니다.
 활발한 여성회의 활동들이 시카고에 은은한 향기를 뿜으며 교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성회라고 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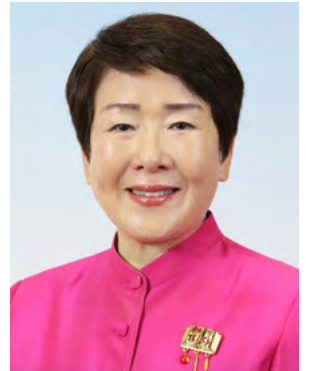
오늘 취임하시는 제18대 박순자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서로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여성회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 저를 대신해서 이사회를 이끌어 주신
 육원자 전 이사장님과 이사회 임원님들, 여성회 고애선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사랑
 의 마음 가득 담아 감사드리며, 여성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시간 속에 채워진 '추억'이란 단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성회 이사님!
 이 아름다운 기쁨의 날에 감사의 꽃다발을 드립니다.
 내내 행복하세요!!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장 심형란



시카고한인여성회는 각별한 단체입니다. 1980년 설립 이래 4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20명의 회장과 17명의 이사장이 열정과 성의를 다해 단체를 이끌어 왔습
 니다. 100여 명의 이사님들 또한 그 시대를 대표하면서 자신을 개발시키고, 가정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리고, 각자가 속한 세상을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성회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
 었던 지난 4월, 공연장이었던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가 780여 명의 관객으로 꽉 찼
 습니다. 합창단원 50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선율을 선
 사했습니다.

또 COVID-19 팬데믹 때는 “가족에게 쓴 편지 모음집”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여
 성”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차단된 것만 같았던 어려운 시
 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지 20여 명의 글을 통해 확인하고, 내 삶에 잇
 을 수 없는 용기를 주었던 여성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에 속한 각 부서 또한 합심하여 각자의 부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할 줄 알았던 것은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여성
 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월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월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여성회의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훌륭한 단체에 제18대 이사장으로 다시 섬기게 된 것과, 또 인품이
 온화하고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고애선 회장님과 아름답고 능력있는 임원님들과
 함께 여성회를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
 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신임 이사장 박순자



시 카 고 한 인 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하나로, 미래로! Better Together!

Phone : 773-878-1900 / 615 N Milwaukee Ave. #11 Glenview, IL 60025 / E-mail: 36kaac@gmail.com

시카고한인여성회가 새로운 연례총회를 개최 한다고 하니, 한인 동포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서 그런지 순식간에 1 년이 지난 것 같고, 세월이 빠른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특히 지난 4 월, 여성회 합창단 35 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단합된 힘은 동포사회의 큰 모범과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임하시는 심형란 이사장님께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새로이 취임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자 신임 이사장님께서 이미 시카고의 여러 단체에서 암암리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단체들의 이사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오랜 멤버이자 제 35 주년 기념음악회의 준비위원장으로도 수고를 하신 분으로 고애선 회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18 대 시카고 한인 여성회 이사장의 이취임식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가 한인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미래를 위한 계획과 목표속에 끊임없이 노력하시리라 믿으며, 이번 이취임식이 여성회의 또 다른 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회 회장 최은주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cago



Consul General

시카고한인여성회 제44회 연례총회와 이사장 이취임식 개최에 축하의 뜻을 표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1980년 설립된 이래 44년간 다양한 친목과 문화 활동, 그리고 봉사사업을 통해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짐은 물론 한인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삶의 에너지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해 왔습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작년도 자랑스러운 한인단체상 수상은 여성회의 그간 활동과 기여에 대한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며, 어느 한 분의 역량이 아닌, 회원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한층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역내 모범적인 동포단체인 시카고한인여성회가 한인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사회와의 우의 증진에 앞으로도 계속 공헌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연례총회가 지난 1년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간 이사장 으로서 여성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심형란 이사장님의 노고와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박순자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가 신임 이사장님과 고애선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를 희망하면서, 임원진과 여타 회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김 정 한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Chicago, Illinois 60611
Tel: (312) 822-9485 Fax: (312) 822-9849

2023년

- 7/7 시카고한인회장(최은주) 취임식 참석
- 7/11 제1차 정기 임원회
- 7/27 성유나 전 회장 송별회
- 7/30 한국 무용단 공연 참석
- 8/5 Ravinia Festival(임윤찬 피아노 연주회) 단체 야외 관람
- 8/15 광복절 기념식(여성회 합창단과 모듬북의 '아리랑' 플레시몹)
- 8/24 서로돕기센터 '두레' GALA 모금 행사 참석
- 8/26 K-Festival 봉사(김치, 비빔밥, 김밥, 합창단과 모듬북 공연)
- 9/12 제2차 정기 임원회
- 9/16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교육부, 한인문화회관 공동 주최)
- 9/21 가을 정기 이사회
- 9/27 총영사관 주최 개천절 행사 참석
- 9/30 Medieval Times의 Dinner & Show 단체 관람(골든클럽)
- 10/8 문학의 밤(문화부)
- 10/15 문화회관 기금모금 Gala (13th Annual Benefit Gala)
- 10/28 아리랑 라이온스클럽 고명주 회장 취임식 참석
- 11/14 제3차 정기 임원회
- 12/10 여성회 연말 감사의 밤 Hilton Hotel Northbrook
- 12/17 한국 무용단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
- 12/28 한인회 송년의 밤 참석

2024년

- 1/13 제19회 미주 한인의 날 121주년 기념식 참석
- 1/28 일리노이한인부동산인 협회 제인 전 회장 취임식
- 1/30 제4차 임원회 및 신년하례식
- 2/10 나일스 양로원 방문(봉사부)
- 2/15-16 고 이은희 이사장님 천국 환송 예배 참석
- 3/19 제5차 정기 임원회
- 3/30 재미 대한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회장 취임식 및 후원의 밤
- 4/4 봄 정기이사회(문화회관)
- 4/7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 강연(문화부, 강사:박재룡 목사)
- 4/21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North Shore Center in Skokie)
- 5/4 서로돕기센터 '두레' 효잔치 참석
- 5/14 아시안 암환우회와 함께하는 봄 잔치 봉사
- 6/4 제6차 정기 임원회
- 6/23 제44주년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심형란 이임/박순자 취임)



1차 정기 임원회

- 2023년 7월 11일 오후 6시 30분, 아리랑 가든
- 지난 연례총회(6/4/23)평가
- 고 이선희 이사 기금 반환 여부를 한인회 결정과 같이 하기로 함

2차 정기 임원회

- 2023년 9월 12일 오후 6시 30분, 바다 스시
- 새로운 임원 소개: 김현숙 부 감사
- 합창부 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4/21/24) 후원, 광고, 기부 부탁
- 가을 이사회 관련 토론(9/21/23)
- 육원자 이사장 대행, 이사비 인상건을 실행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3차 정기 임원회

- 2023년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식당
- 각 부 행사에서 임원들이 공연을 했을 때는 사례하지 않기로 함
- 모듬북 Citadel 양로원 공연(9/25/23)
- 연말 감사의 밤(12/10/23) 행사 관련 토론

4차 정기 임원회 및 신년 하례식

- 2024년 1월 30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식당
- 아시안 암 환우회의 손경미 사모 참석, 설립 배경과 행사 소개
- 임원이 타 단체 행사 참여 시 참석비 보조하지 않기로 함
- 40주년 기념 영상에 골든클럽의 책 두 권 출판 내용 추가할 것

5차 정기 임원회

- 2024년 3월 19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식당
- 합창공연 수익금의 일부를 차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할 것을 공지
- 임원 가족 경조사 범위 및 꽃값 액수를 정함
- 공천위원회(육원자 이사장 대행)에서 차기 회장(박순열) 발표

6차 정기 임원회

- 2024년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식당
- 장애인 체육회에 500불 후원하기로 함
- 연례총회(6/23/24) 관련 토론

2023년도 연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43회 여성회 연례총회가 6월 4일(일) 오후 6시 Crowne Plaza Hotel에서 내외빈을 비롯해 여성회 이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호정 출판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여성회 합창단의 '향수'로 문을 열었고, 심형란 이사장의 환영사, 시카고한인회장과 김정한 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심형란 공천위원장은 박순자 여성회 전 회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성유나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수고한 임원들과 이사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랫동안 여성회에 봉사해온 신임 고애선 회장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20대 여성회 고애선 신임 회장은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여성회'를 표어로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다가가고, 차세대에게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권오화 장학위원장의 심해옥 장학금 수여식과 첼로 연주가 이어졌으며, 회원부 라인댄스와 모듬북 공연은 분위기를 한껏 윤택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는 '만남'을 합창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제20대 여성회를 응원했다.



2023년 가을 정기 이사회

가을 정기 이사회가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6시, 윌링 소재 Chevy Chase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합창단의 'The Sound of Silence'와 '걱정 말아요 그대'로 시작했고, 정정희 총무의 사회로 육원자 이사장 대행의 인사말, 정지연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고애선 회장 보고, 부서별 보고로 이어졌으며 11명의 신입 이사 인준과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2부에는 김영숙 시인의 시 낭송과, 표경진 지휘자의 지도로 한국 가곡 '가고파'와 '보리밭'을 부르며 우리 노래, 우리 정서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신입 이사 명단(총 11명)

강윤희, 김성희, 김순덕, 남동욱, 김현숙, 김현정, 김영란, 설순희, 이진아, 장향자, 홍영숙



2024년 봄 정기이사회

봄 정기 이사회가 2024년 4월 4일(목) 오후 6시, 시카고한인 문화회관 '마루'에서 열렸다. 정정희 이사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여성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날'과 '보리밭' 합창으로 시작됐다. 이어 육원자 이사장 대행의 인사말, 정지연 이사회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 고애선 회장의 회장 보고,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으며 박순열 서기의 차기 회장 인준과 인사말이 있었다.

2부 강의는 Oakton College 이영옥 교수의 'AI 우리 일상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ChatGPT에 관한 최신 정보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영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ChatGPT라는 초거대 생성 언어 AI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잘 알고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유사 제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심어롱 시간에는 '산 너머 남촌에는'을 부르며 감동과 웃음으로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챗GPT: 똑똑한 이유

- ▶AI가 인터넷의 모든 글을 (2021까지(무료), 업데이트 중 (유료)) 통으로 학습(단어 하나 하나가 아니라)해서 문맥을 이해
 - 책, 학술지
 - 신문, 잡지
 - 백과사전
 - 대화 등등
- ▶매일 24시간을 몇 년동안 학습

챗GPT의 한계

- ▶할루시네이션/환각증세: 틀린 대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내놓음
 - 제공받은 훈련 데이터 기반으로만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
- ▶훈련 데이터의 출처 명시 못함
-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큰 모험
-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창의력 부족,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 반영
- ▶무료 버전(3.5): 2021년까지만의 데이터로 학습
- ▶유료 버전(4.0): 최근 정보 업데이트
- ▶유해성 콘텐츠
 - 이전 모델들보다는 향상된 분별력을 보이나 완벽하지 않음
- ▶최근 뉴스: 학교에서 튜터링으로 쓰이면서 수학에서 많은 오류 범함



연말 파티 | End of Year Party

연말 '감사의 밤' 행사

여성회 연말 감사의 밤 행사가 2023년 12월 10일 (일) 오후 6시, Northbrook에 있는 Hilton Hotel에서 여성회 이사와 외부 손님들을 포함,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박순열 서기의 진행으로 시작된 1부는 여성회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육원자 이사장 대행의 이사와 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환영사와 고애선 회장의 희망, 기쁨,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염원하는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내외빈 소개와 여성회 전직 회장, 이사장,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 공연으로 김순덕 소프라노의 독창, 회원부의 라인댄스, 모듬북 공연이 분위기를 한결 흥겹게 만들었으며, 최진숙 이사의 오키나와 공연이 있었다. 이날 여성회는 자체적으로 모금한 한인회비를 한인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2부에서는 제인 전 부회장이 준비한 오락과 게임으로 참석자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회 임원이사들이 기부한 푸짐한 각종 선물이 주어졌다.



Membership | 회원부

(부장: 제인 전, 차장: 서미선)



여성회 회원부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수요 라인댄스'와 '모듬북 클래스'는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삶에 기쁨과 활력을 주고, 백 세 시대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매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년 8월 26일 시카고총영사관과 한인회가 주최한 K-Festival에서 회원부 모듬북 클래스 회원들의 '비창'과 '아름다운 나라' 공연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동포 사회는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한국을 알리는 진정한 공공외교에 일조하였고, 여성회 '연례 총회'와 연말 '감사의 밤' 행사에서 라인댄스의 화려하고 흥이 넘치는 공연과, 다이내믹하고 신나는 모듬북 공연은 참석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사하고 있다. 라인댄스와 모듬북 클래스는 또, 양로원 위문 공연과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이취임식 축하 공연, 교회와 회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 라인댄스와 모듬북을 통한 봉사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부의 모든 클래스는 상시반 운영으로 새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으며, 초보자와 경험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왕초보자도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으므로 클래스를 통해 삶의 즐거움과 활기찬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 누리시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수요 라인댄스 (강사 서명혜): 매주 수 2:30 PM 문화회관 #9820
토요 한국문화반 (강사 이애덕): 매주 토 11:30 AM 문화회관 #9820
문의: (847)990-0554 | DreamHomeWithJane@gmail.com
(773)988-8822 | UniversalTravel02@yahoo.com

골든클럽 | Golden Club

(부장: 이광자 / 차장: 김정아)

피아니스트 임윤찬 공연 관람

<여름밤, 아름다운 음악 향연에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8월 5일, 한국이 낳은 천재 Pianist 임윤찬의 Ravinia Debut를 축하하면서 그의 연주를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첫 음을 눌렀을 때 심장을 강타해야 다음 음으로 넘어갔어요.”라며 첫 음과 처음 두 마디 연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임윤찬은 2004년 3월 20일 생으로, 2022년 6월 미국의 저명한 베티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대회(Van Cliburn Competition)에서 역대 최연소인 18세의 나이로 우승한 바 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이 공연은, 여

Ravina Festival Night
여름밤, 아름다운 음악
향연에 초대합니다
C S O Present
Younger-Ever Van Clyburn Gold Medalist
Yunchan Lim
Conducted by Marin Alsop
Beethoven Symphony #3 Eroica(영웅)
Rachmaninoff Piano Concert #3
회비:\$25(Ticket&도시락)
준비물:각자 Portable Chair,물,간식
일시:August 5, 2023년, 5:30PM(Concert 7:30 pm)
장소:Ravinia(418 Sheridan Rd)
Parking Entrance(Lake St.W.at Greenbay Rd.N.)
Highland Park,IL 60035
연락처:이광자 부장(847.877.6803)
김정아 차장(262.337.3613)
주관:시카고한인여성회 골든클럽





Medieval Times에서 이색적인 체험을!

2023년 9월 30일 삼버그 소재 'Medieval Times'에서 Dinner와 Tournament Show를 관람하는 이색적인 행사를 가졌다. 중세 시대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 활약했던 십자군의 활약상을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도록 Entertainment와 Four Course Dinner를 제공하는 곳으로, 관람객들은 마치 자신이 중세 시대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느낌과 함께 다이내믹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날 공연은 11세기 스페인 Majorca 지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Show이다. 부친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딸, Dona Maria Isabella 여왕은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한 전략으로 스페인 각지로부터 용맹한 호위 무사들을 모집하여 각종 경연 대회를 개최한 뒤 가장 용맹한 Champion Knight 한 명을 뽑아 'Defender of the Land' 호칭을 부여해준다. 관객들은 중세 시대의 Dinner를 Fork와 Knife 없이 즐기면서 'Yellow or Red Knight' Team으로 나뉘어, Knight들의 칼싸움과 묘기를 감상하고 응원하느라 합성을 지르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의 명물 Medieval Times 의
Dinner & Tournament Show 에 초대합니다
☆☆☆ EXPERIENCE THE EXCITEMENT ☆☆☆
Throne 을 보호 하기 위한
Knights 들의 Bravery !!
Based on a True Story in 11th
Century Majorca, Spain
Ticket :\$60
선착순 :40명
(Family Members Welcome)
Two Hour Tournament * Four Course Feast*
Magnificent Horses *Authentic Swordplay & Knight Jousting
주최:시카고한인여성회 Golden Club
일시:Sept.30, 2023 Saturday 4 pm
장소:2001 N Roselle Rd., Schaumburg,IL 60195
문의 및 등록
이광자 부장 (847.877.6803)
김정아 차장(262.337.3613)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Cultural Women's Association
Cultural Ambassador
Leadership Journey
Collaboration | Design Thinking Methodology | Leadership Skills | Real World Application
Participants will take on 10 scenarios that into who they are and what they represent, revealing coaching on critical leadership skills, explore design thinking methodology and problem solving principles that they can apply to their leadership journey as cultural ambassadors,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address real world problems.
Who - High school Students (Grades 9-12)
When - September 16th, 2023 | 9:00AM - 3:30PM
Where - 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3005 South La Salle St., Chicago, IL 60607 (Near South La Salle & South Dearborn)
Contact - Jung Hyeonmi | jungheonmi@kccchicago.org
Ticket Fee - \$3000 (Members Discount)
REGISTER BY Sept 7th, 2023
Register Here




고등학생(Grade 9-12)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리더십 전문가 란자니 아옌가르(Ranjani Iyengar, Glob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rategy Expert)와 크리스틴 박(Kristine Park, Experience Designer and Design Strategist)이 세 명의 특별 초대 손님(Mónica Félix, Nathaniel Rouse, Leslie Reis)과 세 명의 보조 코치(Ye Jin Jang, Julia Hwang, & Danny Park)와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 성찰해 보고 전문적인 리더십 기술에 대한 코치를 받았다. 학생들은 또 전문가들이 안내하는 모델에 따라 질문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디자인적인 사고를 통해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발표하며 한층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Education | 교육부

(부장: 허은영, 차장: 고명주)

청소년 리더십 세미나

여성회 교육부와 시카고한인문화회관(최기화 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행사’가 ‘문화 대사 리더십 여정(Cultural Ambassdor Leadership Journey)’이라는 주제로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편 지난 6월 15일(토)에 있었던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과 차기 리더십 행사 준비, 그리고 임원 임명식이 있었다.


President:
Crystal Yuri Park,
James B. Conant High School


Vice President:
Emma Orillo,
Willows Academy


Vice President:
Hannah Chaeun Yoon,
Glenbrook North High School


Director of Projects:
Kaylee Jimin Hwang
Illinois Math and Science Academy



합창부 | Choir

(부장: 지재란, 차장: 김정옥)



1989년에 창단된 합창부는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친목과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35년째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21일 스키소 소재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린 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는 합창, 남성 사중창(테너 김용민, 김근영, 바리톤 표경진, 이수영), 피아노 이중주(Brian Lee, 정혜원), 플루트(안혜미), 소프라노(김순덕), 국악(박주미, 장윤실, 김덕환) 등 다양한 레파토리와 격조있는 연주로 많은 관람객의 박수를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후원금, 광고, 재능과 봉사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활동 내용

- 10 (월) 제20대 여성회 합창부, 새 임원진 구성
- 7 (월) 방학 시작
- 15(화) 한인회 주최 광복절 행사 공연(악속의 교회)
- 26(토) K-festival(한인회, 총영사관 주최)에서 합창과 봉사
- 29(화) 35주년 음악회 첫 준비모임: 박순자 준비위원장과 임원 14명
- 11 (월) 개학(장소: 악속의 교회)
- 21 (목) 가을 이사회 합창 'The Sound of Silence', '걱정말아요 그대'
- 22 (금) 한국 국립합창단 시카고 공연 관람(Wheaton College): 합창부와 가족 51명
- 11.20 (월) 합창단 35주년 공연 위해 새 단복 Silver Sleeveless Top 구매
- 12.10 (일) 여성회 연말파티 연주 '왜지나 청청나네, '캐롤 메들리'
- 12.11 (월) 종강 파티
- 12.21 (목) 이은희 여성회 전 이사장과 점심 (2/3/2024 별세하심)

2024년도 활동 내용

1. 21 (월) 개학
2. 26(월)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 책자에 넣을 개인 사진 촬영
3. 4 (월) 연습 시간 연장 (7pm- 9:30pm)
3. 25(월) 권오화 단장의 85세 생신 파티
4. 4 (목) 여성회 봄 이사회 합창 '아름다운 날', '보리밭'
4. 9 (화) 보충 연습(화, 목, 토) 시작
4. 21(일) 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North Shore Center for Performing Arts in Skokie)
4. 22(월) 합창단원, 여성회 임원들과 함께 음악회 평가회 및 축하 파티
4. 23(화) 제8차 35주년 기념 음악회 준비위원 모임 및 결산
6. 23(일) 여성회 연례 총회 합창 '나 하나 꽃 피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지휘: 표경진 | 반주: 정혜원
단장: 권오화 | 부단장: 연속자, 김호정
고문: 구광자, 박순자, 김조숙

연습 시간: 매주 월, 오후 7시,
장소: 악속의 교회, 6300 Capitol Dr. Wheeling, IL
문의: (773) 396-2609 | jaeran100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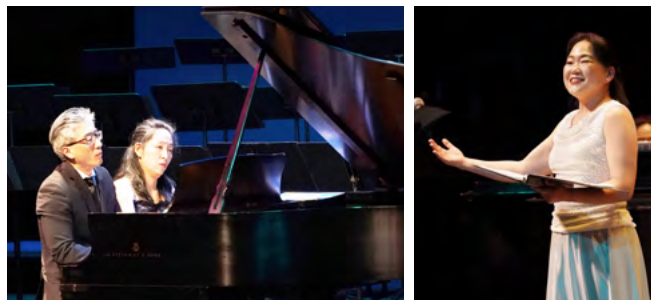
〈2023.12.10 여성회 연말 파티 '감사의 밤'〉



〈2024.4.4 봄 정기 이사회〉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 준비위원 미팅〉



Publishing | 출판부

(부장: 김호정, 차장: 한영숙)

출판부는 일 년간의 여성회 행사 및 각 부서의 사업과 활동상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매년 6월에 발행하고, 여성회의 다양한 행사 및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북 등 각종 책자와 포스터, 광고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또 홍보부와 협조하여 여성회 역사 자료 수집 및 광고 제작을 돕고 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연례 보고서, 광고, 여성회 홍보물 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여성회의 귀한 역사 자료나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출판부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1989년 발간된 '시카고 여성' 창간호
 - 2009년 발간된 30주년 기념 연례보고서 '더 큰 나무를 꿈꾸며'
 - 2015년도 연례보고서
- 컴퓨터 디자인, 사진, 편집 등 창의적이고 즐거운 작업을 같이하며 더 아름다운 여성회를 만들고 봉사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

새싹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2024년 4월 7일, 강사 박재룡 목사의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 강연이 한인문화회관 '마루'에서 열렸다. 쏟아지는 소낙비에도 행사장을 찾은 90여 명의 참석자는 비좁게 앉아야 하는 불편함도 아랑곳없이 멋있게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며 강연에 집중하였다. 이제는 모두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으로 “나도 나만의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강사의 말에 다들 귀를 쫑긋거리며 ‘수직과 수평 사진 구도’, ‘사진 찍는 각도의 중요성’, ‘Space의 비례’, ‘배합의 목적’, ‘인물과 풍경 꿀 팁’ 등 카메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면서 강의 내용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어진 Q & A 시간에도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세상을 활짝 펼쳐보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여성회와 함께 하는 '문학의 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을 뒤로하고, 나뭇잎 붉어지는 가을의 길목에서 여성회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2023년 10월 8일, Crowne Plaza Hotel에서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호정 아나운서의 사회와 함께 시인이자 화가인 김정옥 강사를 모시고 '시와 회화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화가와 조각가의 시선을 배우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인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 신호철 디카시연구회 회장, 박창호 문인회 회장, 김영숙 문화부 부장의 심금을 울리는 시는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져 참가자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맛있는 비빔밥과 함께 진행된 2부 행사는 '삼행시 짓기' 코너로 이어졌는데 참석자 모두 "이렇게 멋진 두뇌 활동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며 각자의 다양하고 재치 있는 대답에 감탄하며 즐거워했다. 한편 고애선 회장이 기부한 각 테이블 꽃꽂이 장식은 이날 최고의 경쟁 상품이었다. 10월의 멋진 문학의 밤이 여성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느낌표를 찍는 날이었다!



디지털 사진

▶ 어떻게 촬영해야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

자연이나 일상생활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사진 소재로 해도 **촬영자인 작가의 생각과 느낌이 사진 속에 표현되는 창의적인 사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 좀 더 나은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감성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사진의 **구도에 변화**를 주고 내 시점에 전환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

▶ 나의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싶은가?

▶ 내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내가 말하고 싶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카메라의 앵글과 사진의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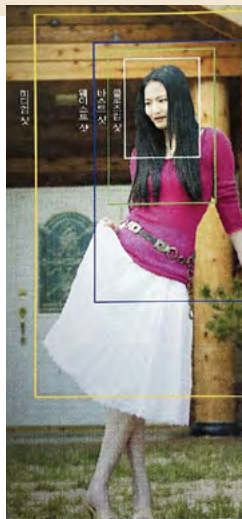
인물 사진 구도 Compositions

▶ **니 샷(Knee Shot):** 인물의 무릎 부분부터 머리 부분까지 촬영한 샷으로 다리가 잘리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무용 등 몸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한다.

▶ **바스트 샷(Bust Shot):** 한 사람 촬영 시 인물의 가슴 부분부터 머리 부분까지를 촬영하며 가장 안정적인 샷으로 인물을 촬영하는데 기본이 된다.

▶ **클로즈업(Close-up Shot):** 인물의 얼굴이 프레임의 가득 채운다. 얼굴만 크게 촬영한 샷으로 인물의 표정을 명료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표현에 효과적이다. 머리 상단부를 배제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입과 턱은 포함해야 한다.

▶ **익스트림 클로즈업(Extreme Close-up Shot):** 인물의 두 눈만 크게 잡아 촬영하는 샷으로 슬피 울고 있거나 공포에 겁난 눈을 강조하는 등 극단적인 감정을 보여줄 때 사용한다.



나일스 양로원 설맞이 위문공연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설맞이 위문공연 잔치가 봉사부 주관으로 2024년 2월 11일(일) 나일스 양로원에서 열렸다. 양로원에서 거주하는 60여 명의 어르신들과 여성회 임원 및 참석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배로 문을 열었다.

이숙현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주미 판소리 민요반 단원들의 '고향의 봄', '몽금포 타령', '새타령'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으며, 헤서드 워십댄스 실버 선교단의 은혜로운 무용은 참가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데 손색이 없었다. 이런 잔치면 늘 빠지지 않는 한국 무용단 중등부 학생들의 '향발무' 춤사위는 화려한 한복 색상과 더불어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양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장기 자랑도 이어졌는데, 백충웅 할아버지의 '유정천리', 송영애 할머니의 '찔레꽃', 남궁운자 할머니의 '주와 함께 살겠어' 등은 이날 분위기를 한층 더 흥겹게 만들었다.

여성회는 준비해 간 다과와 돌보기 안경을 참석한 어르신 모두에게 증정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맨 마지막 순서로 어르신들과 여성회 봉사자들 모두 “고향의 봄”과, “까치까치 설날은”을 합창하면서 다음에 더 풍성한 행사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많은 분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느끼는 자리였다.



아시안 암 환우회 잔치

시카고 지역의 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봄 잔치가 2024년 5월 14일(화), Wheeling 소재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렸다.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잔치는 아시안 암 환우회와 여성회 골든 클럽, 봉사부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시카고 지역 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후원 교회 목회자 등 90여 명이 모여 음악과 무용, 오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보냈다. 이날 잔치는 인사말에 이어, 기독교 방송국 서동원 목사의 시작하는 기도,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원숙 목사의 4명으로 구성된 '헤서드 워십 댄스(Hessed Worship Dance)'와 신정철, 박재룡 목사가 함께하는 듀오 '비파와 수금'이 초청된 찬양, 환우들의 장기 자랑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참석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이 참석해 여성회 임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한, 따뜻한 섬김의 봉사를 실천한 자리였다.





홍보부는 여성회의 모든 행사 및 소식을 각 언론 매체에 알리며 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또 출판부와 함께 여성회에 관한 기사나 사진 등 여성회의 귀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돕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현재 중앙일보, 한국일보, 교차로, 뉴스매거진, 기독교 방송, WIN-TV 등의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고명주 교육부 차장,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회장 취임

고명주 교육부 차장이 2023년 10월 28일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제5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라이온스 클럽은 1973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하는 봉사단체로 시카고 지역에 약 3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각, 청각 장애인과 기아, 입양인, 소아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8일 입양인을 위한 피크닉을 가지고, 다음 날인 6월 9일 미국 현지에서 있는 입양인들과 함께 열흘간 한국을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인 전 부회장,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 협회 회장 취임

제인 전 여성회 부회장(회원부장 겸임)이 2024년 1월 28일, 제30대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함께 하는 협회”를 모토로 40명의 부동산 임원, 이사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 발전할 것을 강조한 전회장은, 40여 년 전에 창단된 한인 경제 단체가 앞으로 차세대와 함께 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유기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여성회와 부동산협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과 봉사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인 사회에 더 큰 도움을 주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미경 감사, 미중서부 황해도민회 회장 취임

김미경 여성회 감사가 2024년 3월 21일 미중서부 황해도민회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해도민회는 1982년 11월 김광철 회장이 설립, 42년의 역사를 가진 이민 1세대의 단체로 7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일의 날을 고대하며 매년 도민들을 초청, 국가 보조로 모국을 방문하고 국가 발전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미경 감사는 그동안 미중서부 미용 재료상 협회 회장, 상공회 수석 부회장, 35대 한인회 부이사장, 36대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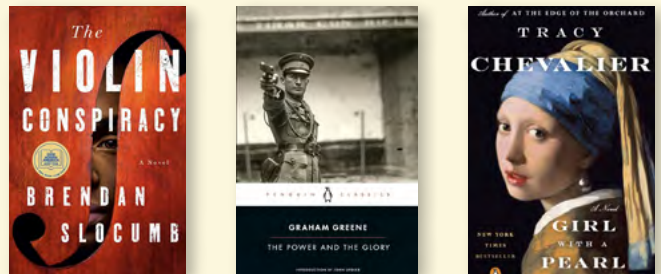
남서부 북클럽 소식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며,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 영국 철학자 Francis Bacon

■ 2023년 6월 7일, 최선옥 박사 자택에서 Brendan Slocum의 저서 'The Violin Conspiracy'로 독서클럽 모임을 가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전 회원도 참석하였다.

■ 9월 6일 모임에서는 'The Power and the Glory (권세와 영광)'로 토론회를 가졌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 (Graham Greene)이 쓴 작품 중에서 가장 명작으로 인정되는 이 소설의 주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가톨릭교회가 멸하지 않고 살아남는가에 대한 심각한 내용을 소설로 쓴 것이다. 모두 감명 깊게 읽은 좋은 책이다.

■ 11월 8일 토론한 책은 'Girl with a Pearl Earring'이라는 책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Johannes Vermeer)가 그린 그림 제목과 동명의 소설이다. 이 그림은 Dutch Mona Lisa라고도 불리는데 그림 속의 젊은 여인은 관능적인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기 어려운 슬픔을 지닌 것 같기도 하다. 소설은 바로 이 그림을 주제로 한 Tracy Chevalier 작가의 역사 소설이다. 역사 소설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과 생각을 합해 쓴 소설을 말하는데, 실제 있었던 인물을 주제로 하면서 사실과 일치하도록 많은 연구를 통하여 창작된다. | 문의 전화: 최선옥 리더 (630) 310-8014



이은희 전 회장/이사장 별세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여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니 많이 할수록 덕이 됩니다” - 이은희

고 이은희 여성회 전 이사장께서 지난 2024년 2월 3일, 8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다. 여성회 3대 회장(1989~1991년)과 8대 이사장(2000~2002년)을 역임하시고, 1989년 여성회 합창단 창단 및 여성회 로고를 제정하시는 등, 초창기 여성회와 시카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셨던 고인은 2월 15일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린 천국 환송 예배에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영면하셨다.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이창복 안과의사와 결혼, 1967년 미국으로 이민 온 고인은 3녀와 7명의 손주를 둔 다복한 삶을 사셨다. 고인은 특히 여성회 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공연을 얼마 앞두고 돌아가셔서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여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니 많이 할수록 덕이 됩니다”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특히 강조하셨던 고인의 삶은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여성회 임원들은 예배가 진행된 그레이스 교회에서 방문객 접수 등 진행 절차를 도우며 먼저 가신 고인을 추모했다.



산티아고 순례기 박순자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성인(스페인명: Santiago, 영어명: James)은 지금 스페인 Santiago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 Herod 왕에 의해 참수 당해 열두 제자 중 처음으로 순교하였다. 그 후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Santiago로 모시고 와서 매장했는데 이 사실은 한동안 잊혀 있었다. 9세기경 이곳에서 발견된 한 유골이 야고보 성인이라는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고, 화장된 그의 유골을 모신 곳을 중심으로 건설된 성당이 지금의 Santiago 대성당이다.

야고보 성인의 유골 발견과 성당 건축은 유럽 기독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그의 무덤을 보러 오는 순례자들이 몰려들었고, 산티아고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가톨릭의 3대 성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 여기를 다녀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알려져 산티아고를 찾는 순례자 수는 매년 늘어났고 2019년에는 약 35만 명을 기록했다.

이런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09년 이곳을 다녀온 남편 동창생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서 되풀이해 듣게 되면서 어느새 산티아고 순례길은 내 Bucket List 중의 하나가 되었다.

순례길은 출발지에 따라 여럿이 있지만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까지 걷는 Santiago France길, 약 800km(500mile)이 가장 유명하다. 하루 20km씩 40일을 걸어야 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이 극심한 피로나 부상 등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힘겨운 거리다. 우리 나이로는 무리여서 기간을 늘려 잡아야 하는데 집안 형편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 2년 전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 내 나이 77세, 남편은 81세, 지금이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또 평생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짧지 않은 인생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펄쩍 뛴다. 당연히 연하다. 그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다. 미

쳤다고 제 돈 쓰고 그 고생을 하나며 절대 안 가겠다고. 그렇다면 비상 수단을 쓸 수밖에. 정말로 안 가겠다고 나 혼자라도 가겠다고 주섬 주섬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니 마음 약한 남편이 저주였다. 하지만 떠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 반, 남편은 일 년씩 준비하고 간다는데 우린 그럴 여유가 없었다. 시카고 보태닉 가든을 총 여섯 번 걸어본 것이 전부였다. 마음을 크게 먹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대신 나이를 생각해 약간의 편법을 쓰기로 했다. 30-40일간의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걷기란 무리여서 큰 짐은 부치고 그날 필요한 작은 짐만 짊어지기로 했다. 또 많은 순례자가 '알베르케'(스페인어 '숙소'라는 뜻)라는 공동 합숙소에 머무는데, 우리는 호텔을 이용했고, 가족 행사로 시카고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전 구간을 걷는 대신 Burgos에서 Leon까지 약 170km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작은 백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넣다 보면 10파운드 정도는 되었다. 이 백을 메고 2022년 4월 17일에 썬장드피드포트(St-Jean-Pied-de-Port)를 출발해 해발 1,430m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 5월 17일 천신만고 끝에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하루 평균 20km씩 총 약 400mile(640km)을 31일만에 걸쳐 걸었다. 때로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강풍 속으로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걷기도 했고, 비 오는 가운데 자갈밭 산길을 오르내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우리 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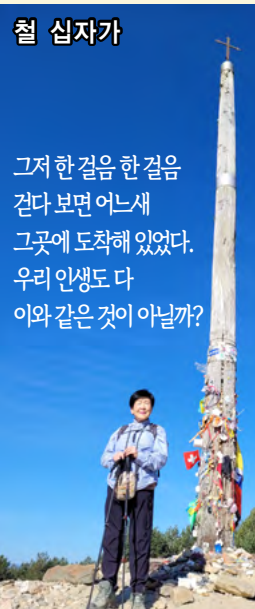


산티아고 대성당

람 모두 아무 데도 아픈 곳 없이, 그 흔한 발의 물집도 생기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다. 걷는 동안 저 멀리 넘어야 할 산이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또 다음 도착해야 할 곳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 인생도 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해 준 남편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어려운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웅씨의 고개



철 십자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 인생도 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어느 순례자의 동상 앞에서

여성회의 연장자/연소자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Lucy Paik (본명: 오신길, 1937년생)

Q: 본인 소개와 여성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A: 전남 의대를 4년 동안 Full 장학금을 받고 1962년에 수석 졸업한 뒤, 1965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69년에 소아과 전문의로 개업했고 2006년에 은퇴했으며, 내과 혈액과 암학 전문의 고 Dr. Peter Paik(백종호)이 남편입니다. 여성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고 이운희 전 회장의 추천으로 가입했지만, 여성회 모임은 늘 목요일에 있었고, 소아과 환자는 부모가 항상 동반해야 하는데 목요일만은 저녁 8시까지 환자를 보느라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콩팥 암으로 은퇴할 때까지 오랫동안 이사 회비만 내는 회원이었습니다.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여성회에 언제 가입하셨는지,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합창단 소프라노 파트에서 활동 중인 홍화표입니다. 2020년 초에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여성회 다양한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Mother's day 행사 때, 한인문화회관에서 함께 식사와 다과를 나누면서 세대를 아우르며 서로 축하하고 즐겁게 보냈던 행사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박순옥 (1974년생)

Q: 간단한 본인 소개와 여성회에 언제 가입하셨는지,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2018년경 처음 가입하고 활동하다 잠깐 쉬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에 합창단원이신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여성회 다양한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2018년도 여성회가 한인회와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글로벌 컨퍼런스' 행사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당시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모두를 초청하여 자녀와 함께 참여했는데, 미주 지역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들

여성회 연말파티 호텔 숙박권 선물 후기

2023년 여성회 연말파티에서 받은 깜짝 선물, 'Cherry Tree Inn B&B 1박 숙박권'은 정말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추억여행 선물이었다. 시카고 서북부 Woodstock이란 작은 마을에 있는 Cherry Tree Inn은 지난 1992년, 영화배우 빌 머레이가 주연한 'Groundhog Day'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으로 우리 부부는 주인공이 매일 아침 6시에 깨어나 반복적인 Groundhog Day를 경험했던 그 방에서 1박을 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다운타

Q: 지금까지 여성회 다양한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처음으로 여성 상담을 여성이 해 주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당시 영어를 잘 못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여성회 합창단이 시카고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노래 부르는 일도 한인 여성회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Q: 여성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여성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 한인 2세, 3세까지 그 시기에 맞추어 좋은 일을 해 나가는 여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화표 (1970년생)



Q: 여성회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데 젊은 시각으로 여성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여성회가 나아가길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합창단 회원이 되어서야 여성회에서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 젊은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동안 여성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여성회가 되길 바랍니다.

의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고,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과 답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저나 자녀에게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습니

Q: 여성회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데 젊은 시각으로 여성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여성회가 나아가길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여성회 합창단에 입단하기 전에는 여성회가 어떤 단체이며 한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합창단 행사를 통해 여성회의 훌륭한 역할과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가 한인 사회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또 세대 간에 동참할 수 있는 행사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도 여성회의 아름다운 뜻과 비전이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운을 돌아보았는데, 영화 속 장면의 촬영지들이 곳곳에 있었다. 특히 빌 머레이가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걷다 고인 물에 발이 빠졌던 곳을 보며 동일한 거리를 걸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아름답고 잊지 못할 멋진 추억여행 기회를 선물해주신 여성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봉락 목사





2023.7.7 한인회장 취임식



2023.7.30 시카고한국무용단 공연



2023.8.15 광복절 행사에서 여성회 합창단과 모듬북 공연



2023.8.26 '두레' 한인서로돕기센터 Gala



2023.9.27 총영사관 주최 개천절 행사



2023.8.26 K-Festival 비빔밥 만들기

여성회, K-Festival에서 중추적인 역할 담당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 시카고총영사관과 시카고한인회가 주최한 K-Festival에서 여성회가 중추적인 협력 단체의 역할을 담당했다.

8월 26일(토) 시카고 다운타운 소재 Maggie Daley Park에서 열린 이 행사를 위해 고애선 회장과 제인전 부회장은 매 주 행사 준비 미팅에 참석하였고, 여성회 임원들은 행사 당일 봉사로 최선을 다했다.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비롯해 김치 담그기 실습과 김밥, 불고기 컵밥 등 한식 체험이 있었다. K-Culture를 만끽할 수 있는 전통 무용, 태권도 시범, K-POP 대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여성회 합창단과 모듬북의 '아리랑 플래시 몹' 공연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2023.8.26 K-Festival 김밥 만들기



2023.10.15 시카고한인문화회관 13th Annual Gala



2023.10.28 고명주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회장 취임식



2023.1.13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2024.1.28 제인 전 일리노이한인부동산인 협회 회장 취임식



2024.2.15 고 이은희 전 이사장 천국 환송예배



2024.5.4 한인서로돕기센터 효잔치

여성회, <도산 안창호 우체국> 법안 발의에 공식 지지 표명
독립운동가이자 미주 한인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열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LA에는 지난 2004년 한인타운 한복판 US Post Office를 'Dosan Ahn Chang Ho Station' 즉,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여 한인인 지역 주민 모두 도산 선생을 기념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해당 우체국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로 도산 우체국이 사라졌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한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대안으로 한인타운 내 새롭게 오픈한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기 위해 담당 지역 Jimmy Gomez 연방 하원의원(CA-34)과 협의하고, 명명을 위한 법안 발의와 표결에 앞서 미국 내 각 한인 단체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여성회도 법안 Letter of Support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H.R.599)은 현재 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Jimmy Gomez

회계 보고 | Accounting Report (7/1/2022~6/30/2023)

Beginning Balance as of 7/1/2022 \$ 36,295.91

INCOME	
이사회비	\$ 12,700.00
후원금	\$ 8,250.00
강정희, 심형란, 이선희 (각 \$1,000)	\$ 3,000.00
구광자	\$ 800.00
육길원, 이강업, 임미라 (각 \$500)	\$ 1,500.00
루시백	\$ 400.00
정신여고 동창회 (연례총회 후원)	\$ 250.00
최기화	\$ 200.00
윤미혜	\$ 1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총회	\$ 6,760.00
후원금 (박순자, 구광자) 각 \$500 광고	\$ 1,000.00
후원금 (고애선 \$2,500, 한울 \$300)	\$ 2,800.00
티켓수입	\$ 2,960.00
합창부 후원금	\$ 24,300.00
장순진 (\$5,000), 권오화 (\$4,800)	\$ 9,800.00
구광자, 박순자, 연속자, 김조숙/각 \$2,000	\$ 8,000.00
서명혜, Heidi Park, 박희숙, 심형란/각 \$1,000	\$ 4,000.00
고희숙, 김유순, 김영옥, 김정아, 구광자/각 \$500	\$ 2,500.00
문화부	\$ 793.00
뜨게질 행사 수입	\$ 108.00
후원금 (권오화)	\$ 500.00
오페라 행사 수입	\$ 185.00
회원부	\$ 11,688.00
후원금/라인댄스 (권오화)	\$ 1,000.00
후원금 / 라댄 & 모듬북 (심형란)	\$ 400.00
수요 라인댄스	\$ 4,460.00
토요 모듬북	\$ 5,540.00
토요 모듬북 의상비	\$ 160.00
모듬북 의상비	\$ 128.00
연말파티	\$ 4,245.00
티켓수입	\$ 4,245.00
TOTAL INCOME	\$ 68,736.00

Remaining Balance as of 6/30/2023 \$ 36,282.09

여성회 전체 구좌 발란스 as of 6/30/2023	
Main Operating Account	\$ 36,282.09
여성회 Money Market	\$ 25,019.26
이선희 기금	\$ 50,000.00
합창부 Operating Account	\$ 15,383.37
합창부 CD	\$ 35,000.00
Morgan Stanley (as of 5/25/23)	\$ 67,717.60
Total	\$ 229,402.32

EXPENSE	
홍보비	\$ 4,480.00
근하신년 광고	\$ 1,030.00
일간지 창간 축하	\$ 600.00
한인회 60주년 기념 행사	\$ 500.00
한국무용단 fundraising	\$ 500.00
미주 한인의 날	\$ 500.00
문화회관 annual gala	\$ 500.00
Run for Love	\$ 300.00
한울	\$ 300.00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 250.00
타단체 후원 및 보조	\$ 1,225.00
서로돕기센터, 한국 무용단, 문화회관, 미주 한인의날	\$ 1,225.00
총회	\$ 6,477.51
크라운플라자	\$ 5,132.01
총회지, 첼로연주자, 떡, 뒤풀이	\$ 1,345.50
합창부 계좌이체	\$ 26,800.00
장순진 (\$5,000), 권오화 (\$4,800)	\$ 9,800.00
구광자, 박순자, 연속자, 김조숙/각 \$2,000	\$ 8,000.00
서명혜, Heidi Park, 박희숙, 심형란/각 \$1,000	\$ 4,000.00
고희숙, 김유순, 김영옥, 김정아, 구광자/각 \$500	\$ 2,500.00
합창부 1년 후원금	\$ 2,500.00
문화부	\$ 1,671.24
뜨게질 행사 감사비, 장소, 재료, 음식	\$ 569.30
후원금 (권오화) / 쌍용 식당	\$ 353.52
오페라 행사 장소, 감사, 음식, 꽃 등	\$ 748.42
회원부	\$ 9,779.83
후원금/라인댄스 (권오화)	\$ 1,000.00
후원금 / 라댄 & 모듬북 (심형란)	\$ 400.00
라인댄스, 모듬북 개강식 보조	\$ 236.51
라댄, 모듬북 대관료	\$ 2,440.00
라댄, 모듬북 감사비	\$ 5,280.00
모듬북 예비 단복비 & 마이크 battery	\$ 423.32
연말파티	\$ 7,759.85
Chevy Chase, 감사패, 게임, 상금	\$ 7,759.85
교육부	\$ 141.43
Retirement Seminar 지출	\$ 141.43
골든클럽 (백세시대 세미나)	\$ 417.67
정기 이사회	\$ 3,248.84
음식	\$ 1,970.00
장소비, 임명장, 우표, gift cards 등	\$ 1,278.84
기타	\$ 6,748.45
웹사이트 제작비	\$ 1,140.00
임원회 & 신년하례식	\$ 1,252.49
여성회 사무실 & 사서함 사용료	\$ 750.00
경조사비, 감사패, 출판부장 수고비, 세금보고, bank fee 등	\$ 1,605.96
심해옥 장학금 (표경진, Sally Chang)	\$ 2,000.00
TOTAL EXPENSE	\$ 68,749.82

(7/1/2023~6/13/2024) Accounting Report | 회계 보고

Beginning Balance as of 7/1/2023 \$ 36,282.09

INCOME	
이사회비	\$ 10,300.00
후원금	\$ 11,800.00
심형란, 강정희 / 각 \$1,000	\$ 2,000.00
한인회 K-Festival 사례비	\$ 300.00
루시백 (\$400), 심화옥 (\$100)	\$ 5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여성회 합창부	\$ 5,000.00
박순자 (여성회 창립44주년)	\$ 2,000.00
연례총회	\$ 2,340.00
연말파티	\$ 4,150.00
합창부 후원금	\$ 61,950.00
박순자 (\$8,000), 구광자 (\$6,000)	\$ 14,000.00
장순진, 장재철 / \$5,000씩	\$ 10,000.00
권오화	\$ 4,400.00
고애선, 연속자, 김조숙 / 각 \$3,000씩	\$ 9,000.00
심형란, 이온희 / 각 \$2,000씩	\$ 4,000.00
강영희, 류순하, 오세옥, 서명혜, 김애자, 경정옥, 박희숙, 지재란, 김영순, 김호정, 박순자, 이영이, 시카고풍물, 한인회, 제인천, 강정희/각 \$1,000씩	\$ 16,000.00
김영옥, 김정아, 고희숙, 간호협회, 이화여대, Young W. Kim, 문화회관, Bank of Hope/각 \$500씩	\$ 4,000.00
육원자 (\$300), 루시백 (\$250)	\$ 550.00
회원부	\$ 12,470.00
토요 모듬북 (7/2023~6/2024)	\$ 6,960.00
수요 라인댄스 (6/2023 ~ 3/2024)	\$ 5,010.00
권오화 도네이션	\$ 500.00
문화부	\$ 2,100.00
참가회비 (문학의 밤)	\$ 1,370.00
참가회비 (디지털 카메라)	\$ 730.00
봉사부	\$ 100.00
Hessed Worship Dance Donation	\$ 100.00
교육부	\$ 7,613.96
도네이션: 비스코 (\$5,000), 영사관 (\$2,000)	\$ 7,000.00
Tickets	\$ 613.96
골든부	\$ 17.00
Ravinia 행사후 잔액	\$ 17.00
TOTAL INCOME	\$ 112,840.96
Remaining Balance as of 6/13/2024	\$ 37,532.49

여성회 전체 구좌 발란스 as of 6/13/2024	
Main Operating Account	\$ 37,532.49
여성회 Money Market	\$ 25,021.78
이선희 기금	\$ 52,075.00
합창부 Operating Account	\$ 7,324.61
합창부 CD	\$ 100,706.93
Morgan Stanley (as of 5/31/24)	\$ 85,524.69
Total	\$ 308,185.50

EXPENSE	
홍보비	\$ 4,300.00
한인회장 취임식, 한국무용단, 서로돕기센터	\$ 4,000.00
문화회관 Gala, 라이온스클럽, 간호사협회	
부동산협회, 장애인 체육회 /각 \$500씩	
중앙일보 창립 44주년 광고	\$ 300.00
티켓 보조 (서로돕기센터, 문화회관, 아리랑라이온스)	\$ 540.00
정기이사회, 연례총회	\$ 5,792.62
식사비, 감사비, 장소비	\$ 5,792.62
연말파티	\$ 8,401.00
Dinner, 독창자, Supplies	\$ 8,401.00
합창부 계좌이체	\$ 64,450.00
박순자 (\$8,000), 구광자 (\$6,000)	\$ 14,000.00
장순진, 장재철 / \$5,000씩	\$ 10,000.00
권오화	\$ 4,400.00
고애선, 연속자, 김조숙 / 각 \$3,000씩	\$ 9,000.00
심형란, 이온희 / 각 \$2,000씩	\$ 4,000.00
강영희, 류순하, 오세옥, 서명혜, 김애자, 경정옥, 박희숙, 지재란, 김영순, 김호정, 박순자, 이영이, 시카고풍물, 한인회, 제인천, 강정희/각 \$1,000씩	\$ 16,000.00
김영옥, 김정아, 고희숙, 간호협회, 이화여대, Young W. Kim, 문화회관, Bank of Hope/각 \$500씩	\$ 4,000.00
육원자 (\$300), 루시백 (\$250)	\$ 550.00
여성회 메인구좌에서 합창부 transfer	\$ 2,500.00
회원부	\$ 10,336.75
라인댄스, 모듬북 개강식/연말파티 보조	\$ 896.75
라인댄스, 모듬북 감사비	\$ 5,760.00
권오화 도네이션	\$ 500.00
라댄, 모듬북 장소 사용료, 모듬북 영상제작	\$ 3,180.00
문화부	\$ 3,463.68
문학의 밤	\$ 1,903.72
디지털 카메라	\$ 1,559.96
봉사부	\$ 2,358.01
양로원 방문 (\$650.99), 암환우회 (\$1,707.02)	\$ 2,358.01
교육부	\$ 7,122.64
Ranjani Iyengar, 도시락, 준비물, 광고	\$ 6,631.03
차세대 network 모임	\$ 491.61
기타	\$ 4,825.86
임원회 및 모임, 경조사비	\$ 3,708.42
여성회 사서함 (7/2023~6/2024)	\$ 500.00
Tax Return Filing & Annual Report	\$ 617.44
TOTAL EXPENSE	\$ 111,590.56

합창부 회계 보고 | Choir Acct. (7/1/2023~6/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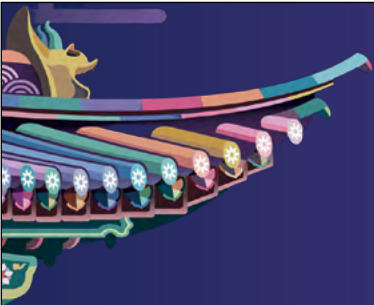
Beginning Balance as of 7/1/2023		\$	15,383.37
INCOME			
회비	\$	5,901.00	
후원금	\$	2,500.00	
여성회 지원금	\$	2,500.00	
35주년 광고후원	\$	103,440.00	
35주년 후원	\$	73,945.00	
35주년 광고후원	\$	15,045.00	
35주년 티켓 세일	\$	14,450.00	
단복	\$	1,820.00	
단복비	\$	1,820.00	
CD Cancel	\$	16,487.50	
From CD	\$	16,487.50	
TOTAL INCOME	\$	130,148.50	
Remaining Balance as of 6/13/2024	\$	7,324.61	
EXPENSE			
X-Mas	\$	1,276.90	
X-mas Party 음식	\$	920.00	
장재철, 임원들 x-mas 선물	\$	356.90	
35주년 음악회	\$	33,783.28	
Skokie Performing Arts 장소	\$	9,011.09	
Brochure, 후원 양식	\$	3,285.00	
35주년 비디오, 영상, 사진	\$	2,000.00	
3주년 사례비	\$	14,750.00	
35주년 광고비	\$	1,850.00	
행사 당일 비용 및 행사후 파티	\$	2,887.19	
사례비	\$	9,882.00	
지휘자 & 반주자	\$	9,882.00	
단복	\$	1,609.31	
단복비	\$	1,609.31	
기타	\$	91,655.77	
장소 사용료	\$	2,000.00	
생일파티 & supplies	\$	1,815.49	
개학 디너 파티	\$	1,000.00	
악보 카피	\$	608.74	
차세대 후원금	\$	5,000.00	
경조사비	\$	250.00	
Checkbook order, supplies & misc	\$	630.54	
Bank of Hope CD 로 Transfer	\$	80,000.00	
국립 합창 관람 보조	\$	351.00	
TOTAL EXPENSE	\$	138,207.26	

예산안 | Budget (7/1/2024~6/30/2025)

수입 예산안		지출 예산안	
Donation	\$17,000	Operating Expense	\$9,000
일반 후원금	\$10,000	홍보비 및 기관단체 후원	\$4,000
심해옥 장학금	\$2,000	문화회관 사서함	\$500
장순진, 장재철 후원금	\$5,000	정기 임원회, 수련회 및 행사	\$3,300
		경조사비	\$500
		세금보고, 사무용품	\$700
Event Income	\$19,000	Event Expense	\$17,000
이사회비	\$10,000	봄, 가을 정기 이사회	\$4,000
연례총회	\$5,000	연례총회	\$5,000
연말파티	\$4,000	연말파티	\$6,000
		심해옥 장학금	\$2,000
Program Income	\$28,000	Program Expense	\$38,000
회원부	\$12,000	회원부	\$12,000
골든클럽	\$2,000	골든클럽	\$2,000
문화부	\$1,000	문화부	\$1,000
합창부	\$6,000	합창부	\$13,000
교육부	\$2,000	교육부	\$2,000
차세대 교육	\$5,000	봉사부	\$2,000
		출판부	\$1,000
		차세대 교육	\$5,000
Total Income Budget	\$64,000	Total Expense Budget	\$64,000



시카고한인문화회관
Korean Cultural Center of Chicago



MUSEUM
조선콜렉션, 시카고 한인이민사, 이민사 구술역사

GALLERY
미술 및 공예 작품 전시회

LIBRARY
북 클럽, 베스트 셀러 및 신간 서적

MARU & EVENT HALL
콘서트, 영화 상영, 세미나, 컨퍼런스, 뱅킹, 각종 행사

ASSOCIATED CLASSES
교육: 한국어, 가베
미술: 수채화, 동양화, 서예, 미술교육
무용: 한국무용, K-Pop Dance,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워십댄스, 줌바
음악: 합창, 색소폰, 기타
국악: 청소년/성인 풍물, 판소리, 민요, 가야금
운동: 탁구, 요가, 단전호흡
취미: 바둑, 공예, 요리

- K-Wedding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전통혼례 & 혼례 체험
- Korean Lunar New Year Celebration / 설날
- K-Children's Day Celebration / 어린이날
- Korean Thanksgiving Celebration / 한가위
- Classic Concert / 클래식 콘서트
- Mozart in the Morning / 모짜르트 인 더 모닝
- Gallery Invitational Exhibition / 갤러리 초대작가전
- KCCoC Pungmul School / 문화회관 풍물학교
- Korean Cultural Center Field Trip / 문화회관 견학
- Junior Ambassador / 청소년 문화 리더쉽 & 자원봉사 프로그램

Hours / Mon.-Fri. 9am-5pm / Sat. 10am-3pm / Sun. Closed

9925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847. 947. 4460 / admin@kccoc.org

www.kccoc.org

www.facebook.com/kccoc

www.instagram.com/kccoc_chicago

www.youtube.com/koreanculturalcenterofchicago

심형란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박순자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카고 정신여고 동문 일동



Past Presidents & Chairpersons of the Board |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회장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이사장		
1대	홍성옥	(1980-1987) 작고	1대	고동혜	(1987-1990) 작고
2대	심정열	(1987-1989)	2대	고난경	(1990-1993) 작고
3대	이온희	(1989-1991) 작고	3대	이승옥	(1993-1996) 작고
4대	김성자	(1991-1993)	4대	안순영	(1996-1998) 작고
5대	최(이)화섭	(1993-1995) 작고	5대	최선옥	(1998-2000)
6대	주함숙	(1995-1997)	6대	이온희	(2000-2002) 작고
7대	김영	(1997-1999)	7대	김명숙	(2002-2004) 작고
8대	권오화	(1999-2001)	8대	권오화	(2004-2006)
9대	구광자	(2001-2003)	9대	최(이)화섭	(2006-2008) 작고
10대	심해옥	(2003-2005) 작고	10대	구광자	(2008-2010)
11대	강영희	(2005-2007)	11대	김성자	(2010-2012)
12대	심형란	(2007-2009)	12대	심정열	(2012-2014)
13대	전명희	(2009-2011) 작고	13대	김영	(2014-2016)
14대	박규영	(2011-2013)	14대	강영희	(2016-2018)
15대	최선주	(2013-2015)	15대	박규영	(2018-2020)
16대	조은서	(2015-2017)	16대	육원자	(2020-2022)
17대	써니 김	(2017-2019)	17대	심형란	(2022-2024)
18대	박순자	(2019-2021)	18대	박순자	(2024-2026)
19대	성유나	(2021-2023)			
20대	고애선	(2023-2025)			
차기	박순열	(2025-2027)			

시카고한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시조집

Sijos by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Chicago



한가람 봄바람에 피어난 우리
성인이 이를 불러 이화라했다.
거룩한 노래 곱게 도나니, 황아방 안에 천국이 예라.
이화 이화 우리 이화, 진선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 아 우리 이화!

구광자, 김선희, 김정희, 박순자, 양옥자, 오유심, 이해숙, 최인



제20대 시카고한인여성회 임원 | Officers (2023.6-2025.6)

직책/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장	고애선	847-452-6254	aesonkoh@gmail.com
이사장	심형란	847-312-8982	shimhyungran@yahoo.com
부회장	제인 전	847-990-0554	DreamHomeWithJane@gmail.com
총무	임미라	224-616-4440	miraim80@gmail.com
이사회 총무	정정희	847-873-2742	junghee.jeong@yahoo.com
서기	박순열	224-628-5841	park.soonyeoul@gmail.com
이사회 서기	정지연	574-274-4706	jennyjung1031@gmail.com
회계	크리스틴 윤	224-247-9155	christine.yoon@bankofhope.com
감사	김미경	773-474-3310	michellekim9699@gmail.com
부감사	김현숙	847-971-5128	helenkimtcm@gmail.com
골든클럽	이광자 부장 김정아 차장	847-877-6803 262-337-3613	kwangclee@yahoo.com joycekim92@gmail.com
교육부	허은영 부장 고명주 차장	224-778-0211 484-995-1555	7dobest@gmail.com Spaleakoh@gmail.com
문화부	김영숙 부장 고미숙 차장	773-339-2927 773-556-7816	hwalim22@gmail.com Mkochoi@yahoo.com
봉사부	이숙현 부장 이은애 차장	773-577-1559 267-210-8188	sookhyenlee59@yahoo.com eajin920@gmail.com
출판부	김호정 부장 한영숙 차장	415-670-0130 815-527-2457	hojeungkim@yahoo.com ysmangum@gmail.com
합창부	지재란 부장 경정옥 차장	773-396-2609 847-702-0695	jaeran1006@gmail.com croepke@comcast.net
홍보부	박순열	224-628-5841	park.soonyeoul@gmail.com
회원부	제인 전 부장 서미선 차장	847-990-0554 773-988-8822	DreamHomeWithJane@gmail.com UniversalTravel02@yahoo.com

편집 후기

여성회 지난 일 년간의 소중한 추억
들을 연례 보고서에 담고 꾸미면서
올해는 특히 더 '페이지가 모자라네'
라고 느꼈습니다.
해마다 만드는 보고서이지만 더 참
신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출판부에서는 아이디어를 모
으고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찬 여성회와 따뜻한 사회를 만들
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출판부 김호정 부장

연례 보고서는 '여성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켜켜이 쌓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
은 기록은 오랫동안 돌아볼 수 있
고, 과거를 고히 삼아 미래를 계획
할 수 있기에 참으로 흥미로운 작업
입니다.
올해도 '한 권으로 읽는 우리들의 이
야기'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
께 감사드립니다.

- 출판부 한영숙 차장

심형란 이사장님의 이임과
박순자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제9대 회장/제10대 이사장
구광자



여성회 사업 및 행사 계획 | Upcoming events

연중 프로그램

- 회원부 수요일 라인댄스: 매주 수요일 오후 2:30 (강사 서명혜)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9820
- 회원부 토요일 모듬북: 매주 토요일 오전 11:30 (강사 이애덕) @ 시카고한인문화회관 #9820
- 여성회 합창단: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지휘 표경진) @ 약속의 교회

2024년

- 7월 제7차 정기 임원회 및 임원 수련회
- 8월 리더십 세미나 (교육부)
- 9월 제8차 정기 임원회
가을 정기 이사회
- 10월 장애우와 함께 하는 볼링대회 (봉사부)
- 11월 제9차 정기 임원회
문화부 행사
- 12월 연말 감사의 밤

2025년

- 1월 제10차 정기 임원회 및 신년 하례식
- 2월 골든클럽 세미나
- 3월 제11차 정기 임원회
교육부 세미나
- 4월 봄 정기 이사회
- 5월 제12차 정기 임원회
가정의 달 행사 (교육부, 문화부, 골든클럽)
- 6월 제45회 연례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kawaoc@gmail.com | www.kawac.org | 9925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자주 쓰는 채팅방을 상단에 고정하기 (Pin to Top)

자주 쓰는 채팅방이 새로 온 카톡 메시지 때문에 자주 아래로 밀려 찾을 때마다 불편했다면 '채팅방 상단 고정하기'를 이용해 보세요. 중요한 채팅방을 목록 제일 위에 고정해 줍니다.

(아이폰에서는 '채팅방 핀 설정'으로 보임, 최대 5개까지 가능)

1. 상단에 고정하기 원하는 채팅방을 길게 눌러 주기 (아이폰 사용자는 스텝 4부터)
2. 설정 도구 창에서 '채팅방 상단 고정(Pin to Top)' 선택하기
3. 목록 가장 위로 원하는 채팅방이 이동하면서 옆에 핀 표시가 생긴다.
*상단 고정 채팅방 해제: 채팅방을 길게 눌러 '채팅방 상단 고정 해제(Unpin)' 선택
4. 아이폰 사용자는 원하는 채팅방을 오른쪽으로 밀기
5. 보이는 아이콘 중 '핀(Pin)' 모양 누르기
6. 목록 가장 위로 원하는 채팅방 이동 확인, 상단 고정된 채팅방 옆, 작은 '핀' 모양 확인
*상단 고정 채팅방 해제: 해당 채팅방을 오른쪽으로 밀어 '채팅방 상단 고정 해제' 선택

예약 메시지 보내기 (Schedule Message)

꼭 해야 할 카톡 메시지가 밤늦게 떠올랐을 때, 잊으면 안 되는 기념일이 있을 때, '예약 메시지'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를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고 보낼 수 있어요. (단, 대화 내용이 있는 채팅방에서만 보낼 수 있음)

1. 채팅방 하단 '+' 버튼을 눌러 예약 '예약 메시지(Message)' 아이콘 선택하기
2. 메시지 입력 후 발송 일시와 발송 대상 설정하기 (이모티콘, 사진, 파일, 음성도 첨부 가능)
3. 메시지 예약(Schedule) 하기

*'알림 받기(Get Notifications)'를 설정하면 예약 메시지 발송 15분 전에 알림이 온다.

음성 메시지 보내기 (Voice Memo)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을 때,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를 생생한 음성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음성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1. 채팅방 하단의 '+' 버튼을 눌러 '음성메시지(Voice)' 아이콘 선택하기
2.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눌러 전하고 싶은 말 녹음하기
3. 녹음을 마친 뒤 보내기 버튼 클릭하기

*채팅창 오른쪽 끝에 있는 녹음 버튼을 이용해도 녹음 가능

카카오톡 사용 꿀팁

TALK

